



「그리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키다리 아저씨의 애정어린 충고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42) 씨의 성수동 작업실은 동화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봄 숲에서나 볼 수 있는 나뭇가지들,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곤충들, 앉으면 부서질 것처럼 보이는 투명 의자, 도깨비 장식품, 그리고 팔레트, 물감, 공간과 어울리는 조용한 음악. 그 풍경 속에서 자연과 사람을 찍은 사진을 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그는 이상의 동화로 알려진 《황소와 도깨비》(다림),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꼬꼬댁 꼬꼬는 무서워》(도깨비)로 '도깨비 화가'라는 애칭을 얻은 바 있다. '도깨비 아저씨'로 유명하기에 이번에도 도깨비 그림인가 했지만 그가 최근 준비하는 작품은 자연 관련 그림책이다.

“도깨비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흑부리 영감, 도깨비감투 등 잘 알려진 얘기들만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서 해주고 싶죠. 사실 ‘도깨비 화가’라는 말이 부담되거든요. 좀더 공부를 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제가 한국 도깨비를 그리는 사람도 아닌데 한국 도깨비를 그리는 것처럼 이해받는 것도 싫고, 저 아저씨가 그리는 그림이 한국 도깨비라고 소개되는 것도 부담이 돼요.”

여러 그림들 중 도깨비 관련 작품이 주목받았을 뿐 그의 작품세계는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보림)에서는 사실화 느낌의 그림을 선보였었고, 《미산 계곡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보림)로 생태·환경그림책을 발표했으니 한병호라는 작가를 도깨비만 그리는 화가로 명명하는 것은 이 작품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싶다. 작가가 가장 애착이 가는 책으로 손꼽는 작품 역시 《미산 계곡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잘 팔리지는 않지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거든요. 10년을 투자했고, 2년에 걸쳐 그림을 그렸죠. 사실 환경분야는 평생을 투자해도 못다 할 만큼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수입책 아니면 외국 동화를 읽히는데 특히 생태분야의 기초적인 우리 책들이 부족한 실정이죠.”

평소 아이들의 행동과 표정 등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는 구상적인 작업보다는 비구상적인 그림책으로 꼬마 친구들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말미에 권선징악과 같은 교훈을 남기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른들 잣대로 동화책을 만들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줘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림책 중에는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작품이 많잖아요.”

1998년 개인전을 연 데 이어 2002년 아시아 일러스트 재팬 비엔날레에서 《꼬꼬댁 꼬꼬는 무서워》로 대상을 수상한 그가 일러스트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88년. 본래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 바른손에서 일하면서 일러스트를 알고 공부하게 되었다는 그는 그림과 함께 하게 된 자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표현한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죠. 일러스트도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 잣대로 디자인, 회화, 일러스트를 구분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나눌 필요가 없지요.”

그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작가들 스스로가 자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러스트가 변방으로 몰리란 데에 한국적 가치관이 한 몫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만화가도 아니고, 회화화기도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



이 있죠. 그래도 많이 인정받게 되어 다행인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밝은 편인걸요.”

본래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는 출판 일러스트 일을 하면서 조금씩 외향적인 면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2002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과의 만남을 먼저 주선한 것도 그런 모습들 중의 하나다.

“작년 11월쯤에 만났어요.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림공부를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모임을 가졌죠. 저로 인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친구들 스스로 해나가게 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작업실에 모인 후배들을 가르쳐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한 후 독립시킨 바 있는 이 착한 선배는 후배들 앞에서 ‘일 조금만 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출판사 마감시간에 쪼들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루 작업량이 많지 않아요. 11시 정도에 작업실에 나와서 9시쯤 들어가는데 그 중 5시간 정도를 투자하죠. 예전에는 밤도 잘 썼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네요. 그림 그리는 일이 에너지 소

비가 크거든요.”

그는 자신의 시간 역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쪽으로 더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림만 그리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직접 그림 속 환경을 찾아가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평 현리에 마련된 작업실 역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만든 곳 중의 하나이다.

“일본 작가들 책에 나오는 프로필을 보면 1920년, 30년생인 작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작가로 남고 싶어요. 진짜 한국 도깨비다운 도깨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생태동화 분야도 시도해 보고 싶죠.”

지금 당장 평가받고 안주하기보다는 최소한 마흔 다섯까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한병호 씨는 누가 봐도 겸손한 ‘노력과’ 작가다. 여기에 그림을 들고 찾아오는 후배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따뜻함까지 갖고 있으니 그에게 ‘도깨비 아저씨’라는 별명 대신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줘도 좋을 법하다. 죽어가는 우리 생태에 생명을 선물하고, 아이들에게 선사할 그림을 열심히 구상하는 작가로 말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